

# ‘민’(demos)<sup>1)</sup>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신 철 희 | 서울대학교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 그리스 시기에 ‘민’(demos) 개념이 ‘전체 시민’과 ‘일반 평민’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논의의 초점은 주로 통치(kratos)나 제도(politeia)였고, 민주주의의 행위 주체인 민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드물었다. 그러나 모든 제도 운영은 인간이 한다는 점에서 민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의 어원인 ‘demos’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처음에는 행정 구역 단위인 ‘deme’를 의미하였지만, 이후에 주로 그 곳에 거주하는 ‘평민(농민)’과 ‘시민 전체’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데모스’의 이러한 중의성은 ‘민’ 개념에 대한 귀족과 평민의 시각 차이를 반영하는데, ‘전체 시민’은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민의 열망이, ‘평민’은 그들을 아테네의 대표 세력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귀족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민’ 개념의 중의성은 귀족과 평민의 갈등 관계와 더불어서 민이 귀족보다 폴리스와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의 본질(telos)에 더 부합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편 아테네 정치사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문헌인 『정치학』과 『아테네 정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계급과 혼합정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민과 민주정의 이상이 보편성과 개방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민주주의, 민, 데모스, 아리스토텔레스, 중산계급, 혼합정

1) 본 논문에 나오는 ‘민’(民)은 주로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demos)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더 나아가서 정치 공동체 내의 귀족이나 엘리트와 대비되는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 I. 서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핀리(Finley 1985, ix)는 “오늘날 서구에서 모든 사람은 민주주의자”이며, “이것은 150년 전의 지배적인 상황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핀리의 언급은 단지 서구에서 뿐 아니라, 정치체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진실일 것이다. 실질적인 통치 모습과는 별개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Shapiro 1996, 2; Crick 2002, 7-8).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sup>2)</sup> 오늘날 정치학은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논의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는 정치학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demokratia)의 사전적 정의가 ‘민(demos)에 의한 통치(kratos)’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치(kratos)나 제도(politeia)에 초점을 맞추고 이상하리만치 그 행위 주체인 민(demos; people)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민주주의의 운영을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정치체제나 제도, 이념 이전에 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demos) 개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정의 전성시대에 ‘데모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고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한센(Hansen 1999, 154-5)은 아테네인들이 공공연설을 할 때 민회(ekklesia)에 모인 사람들을 “ho demos”라고 불렀지만 재판정(dikasterion)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데모스’라고 보았다. 달(Dahl 1989, 362)은 기원전 7, 6세기에 데모스는 막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구의 일부, 즉 부상하는 중무장 보병(hoplites)을 의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오베르(Ober 1989, 33; 1996, 117)는 ‘데모스’는 “아테네 시민 전체”(the whole of the Athenian citizen body)를 의미하며, 실재 하지만 그 수가 많아서 한 장소에 모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전체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민족에 대한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개념을 빌려서, 이념적 성격을 지닌 “상상의 공동체”(imagined

2) 민주주의와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참고문헌 목록은 던(Dunn 1992, 267-278) 참조.

community)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데모스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모스는 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데모스가 계급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아테네의 모든 시민을 지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적어도 귀족이나 상류계층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모스’가 처음부터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행정 구역 단위를 ‘deme’라고 불렀는데, 특히 아티카(Attica) 지방의 ‘deme’를 ‘demos’(‘demoi’)라고 칭하였다. 이 ‘데모스’가 처음에는 ‘(행정) 구역’, ‘시골’, ‘토지’를 가리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민’의 의미가 첨가되었고, 이후 민주정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시민’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Whitehead 1986, 364-5). 이렇게 고대 그리스 시기에 ‘데모스’는 사람들을 지칭할 경우에는 ‘시민 전체’와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평민’(the common people)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Finley 1983, 1; Farrar 1992, 19; Ober 1998, 4; Canovan 2005; Osborne 2011, 29).

그런데 ‘데모스’라는 단어의 ‘중의성’(重意性)은 단순히 언어학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데모스’는 무엇보다도 고대 아테네에 존재하였던 계층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 준다. 즉 ‘전체 시민’의 의미는 행정구역 단위인 ‘deme’의 주 거주자들인 평민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반면에 ‘평민’은 그들을 아테네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정하기 싫은 귀족들의 의사가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모스’ 개념에 대한 귀족과 평민 사이의 시각 차이는 정의(dikaiosyne)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인데,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80a23-26)<sup>3)</sup>에 의하면, 재산에서 우월한 귀족들은 다른 모든 공직과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요구하였고, 반면에 평민들은 모두 평등한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시각 차이가 과두정과 민주정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낳았고, 결국 ‘데모스’ 개념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데모스’ 개념의 이중성은 또한 민주주의(민주정)의 본질과 이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증산계층과 혼합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그는 ‘데모스’에 대한 민의 시각이 귀족보다 보편성과 평등성 측면에서 우월하며, 민과 민주정의 본래 이상도 여기에 있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그의 주요 저작자인 『정치

3) 이하 숫자와 알파벳 소문자는 통상적인 표기법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ka) 원전의 해당 구절을 지칭한다. 그리고 논문에 인용된 『정치학』 본문은 천병희 역(Aristoteles 2009)을 따랐다.

학』(*Politika*)과 『아테네 정체』(*Athenaion Politeia*)는 고대 아테네 정치 현실에서 시민권, 정치체제, 정의관을 둘러싼 민과 귀족 사이의 갈등, 그리고 정치의 변화 과정, 민주정의 특성 등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 II. ‘데모스’의 기원과 중의성(重意性)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1291b14-30)에서 데모스의 종류를 여섯 가지 - 농민, 기술자, 상인, 바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해군, 장사꾼, 뱃사공, 어부), 비숙련공과 극빈층, 부모가 모두 비자유민인 자 - 로 분류하고 있는데, 데모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데모스는 인적 집단 이전에 지리적 개념이었다는 점이다. 즉, 1차적으로 ‘demos’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농촌 지역을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인 ‘deme’와 동일한 의미였다.<sup>4)</sup> 민주주의의 인적 기반인 데모스가 행정구역 단위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전에도 deme가 존재하였지만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티카(Attica) 지역을 139개의 deme로 나누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민권과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즉 이전에는 도시를 귀족 가문의 조직(gentes)에 따라 분할하였기 때문에 귀족이 정치를 독점하였었는데, 이를 deme와 같은 지역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귀족의 영향력을 분산시키고 평민(농민)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라 지역에 근거한 참정권의 부여는 임의성을 높여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흡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Weber 1978, 1313, 1347).

행정구역 단위를 의미하였던 ‘demos’는 시간이 지나면서 ‘deme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평민’, ‘빈자’(貧者)의 의미가 첨가되었고, 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시민 전체’의 의미도 생겨났다.<sup>5)</sup> 따라서 ‘demos’는 행정단위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할 경우 ‘평민’(또는 ‘다수의 빈자’)과 ‘전체 시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4) 행정구역 단위로서 ‘demos’(‘deme’)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오스본(Osborne 1985) 참조.

5) 라슨(J. A. O. Larsen)은 ‘demos’의 의미를 시간과 인과관계의 순서대로, i) 구역, 시골, 토지, ii) 위의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 iii) (농촌 지역에 주로 평민들이 살기 때문에) 평민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Whitehead 1986, 364-5에서 재인용).

‘데모스’의 이중적 의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의 일반적인 견해는 ‘데모스’가 처음에는 ‘전체 시민’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민이 도시의 권력을 독점하면서부터 엘리트 귀족을 제외한 ‘일반 평민’의 의미로 변하였다는 것이다(Ober 1998; 김정희 2006). 즉, 민주정이 본격화된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의 개혁(기원전 508-507) 시기에는 모든 세력이 법 앞에 평등한, 말 그대로의 ‘이소노미아’(isonomia)가 유지되었지만 아테네가 패권을 추구하던 5세기 이후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테네 정치를 장악한 급진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데모스’의 의미가 ‘시민 전체’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김정희(2006, 12)는 ‘데모스’라는 말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지역 행정구역 단위인 ‘demes’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단어 그대로의 뜻은 ‘demes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demes에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데모스’는 처음에는 ‘모든 인민’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기원전 5세기 아테네가 전체 인민이 아닌 일부 분파가 주도적인 정치체제로 변하면서, 즉 민주정(demokratia)이 본격화되면서, ‘데모스’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the poor many)을 주로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처음에 ‘데모스’는 ‘전체 시민’보다는 ‘평민’의 의미가 더 강하였고, 시간적 순서를 따지더라도 후자가 전자보다 앞섰다고 생각한다. 아테네의 사회구조는 도시의 채권자와 농촌의 채무자 사이의 갈등관계가 중심이었고(Weber 1978, 1316, 1341), 클레이스테네스가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도 대상자들은 주로 부유하지 않은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에도 ‘데모스’는 ‘시민 전체’의 의미보다는 ‘농민’ 또는 ‘평민’, ‘빈자’의 의미가 훨씬 강하였다. ‘데모스’의 의미가 ‘시민 전체’로 확장되고 귀족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데모스’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오히려 4세기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5세기 말(403-402년)에 민과 귀족의 타협에 의해서 민주정이 회복된 후 데모스는 점점 귀족에게도 존중을 받게 되었고, 4세기 중반에 ‘demos’는 ‘demokratia’와 더불어 아테네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Smith 2003). 그래서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예술 작품에서 ‘데모스’는 ‘수염을 기른 성인 남자’로 의인화 되었고, 반면에 ‘demokratia’는 머리가 긴 여신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Glowacki 2003, 447-466).

따라서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이후의 시기만을 따진다면 민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극단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민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원전 7세기부터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데모스’가 ‘모든 인민’을 의미하였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정치에서 소외된 민이 점차 인민(시민)의 자격을 얻어가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Finley 1983, 15). 또한 ‘deme’라는 행정구역이 클레이스테네스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demos’도 그 이전부터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데모스’의 의미가 ‘전체 시민’에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변하였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 오히려 고대 아테네 시기에 ‘데모스’ 개념의 이중성은 시간의 변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그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귀족들은 ‘데모스’를 자신들과 다른 일부 계급(세력)으로 한정시키려고 한 반면에, 일반 평민들은 ‘데모스’를 아테네의 ‘전체 시민’으로 받아들여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데모스’가 ‘시민 전체’와 ‘비엘리트 계급’이라는 이중의 의미<sup>6)</sup>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테네 정치 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데모스’의 이중적 의미는 차별에서 벗어나서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민의 열망을 반영한다. 신분과 부에서 열등한 평민들<sup>7)</sup>이 정치적으로 예속된 삶에서 벗어나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민의 지향점과 열망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 평등과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데모스’를 ‘평민’으로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평민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인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폴리스 내의 민주파(민중파)와 과두파의 갈등은 또한 폴리스의 역할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솔론의 개혁 이후(본격적으로는 기원전 508-507년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이후) 민주정이 점점 우세한 정치체제로 확립되어가자 기존의 귀족들은 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폴리스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은 폴리스의 권위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전체 시민, 즉 데모스(Demos)를 위한 정책이라고 믿으려고 하였다. 민주정에서 귀족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특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과두적 경향을 보인 반면에, 민은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민주적

6) 마키아벨리가 다루고 있는 피렌체와 이탈리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탈리아어 ‘포폴로’(popolo)는 엘리트 귀족(grandi)과 대비되는, 길드에 소속된 ‘중간계층’(middle class), 그리고 피렌체의 ‘시민 전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Najemy 2008, 35-6). 한편 고대 로마 시대에 그리스어 ‘demos’의 번역어로 사용된 라틴어 ‘populus’도 마찬가지로 ‘일반평민’과 ‘전체시민’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7) 솔론의 개혁 이전 평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상당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솔론의 개혁의 핵심은 부채로 인한 인신 구속을 규제하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4계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 것에 있었다(『아테네 정체』, VII).

경향을 보인 것이다(최자영 2005, 21-4; 2007, 131-3).

다음으로, 아테네의 정치사가 신분과 부에서 우세한 귀족에 대항하여 민의 정치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정체』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그의 표현이 변한다는 것이다. 사료에 따르면, 솔론의 개혁이 있기 전의 아테네 정치체제는 모든 면에서 “과두적”이었다(『아테네 정체』, II<sup>8)</sup>). 그리고 솔론이 재판에 상소심을 허용함으로써, 즉 민이 재판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이 “정치체제의 주인”이 되었다(『아테네 정체』, IX).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전의 4부족 대신 10개의 부족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400인 의회(boule)를 500인 의회로 바꾸고, 도편추방법을 제정하는 일련의 민주적인 개혁을 통해 도시의 “민주정이 서서히 발달”하게 되었다(『아테네 정체』, XXIII).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와 테미스토클레스 시대에 “도시는 대담해졌고” 돈이 많이 모아져 “패권을 추구”하였다(『아테네 정체』, XXIV). 또한 페리클레스 시대에 “정부는 더 민주화”되었다(『아테네 정체』, XXVII). 위와 같이 아테네 정치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찰에 따르면 적어도 솔론(클레이스테네스)의 시대부터 자신이 살던 시대까지는 민이 지배적인 시대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민의 힘은 더 강해지고 극단화 되었다.<sup>9)</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정체』는 민이 폴리스의 전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족들의 반감이 커지고 ‘데모스’의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민이 시민에 편입된 이후 점차 세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데모스’의 의미가 ‘평민’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데모스’의 두 가지 의미의 시간적 순서도, 대다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 시민’에서 ‘일반평민’으로 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이 진실에 더 가깝다. 클레이스테네스가 deme(demos)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을 때 그 대상은 주로 농민(평민)이었으며, 이후에 아테네 도심에도 동일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의 민이 도시로 이주하자 ‘데모스’는 점차 아테네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전체 시민’의 위상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이 아테네 정치를 좌우하면서 ‘데모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

8) 이하 로마 숫자는 『아테네 정체』의 해당 장을 지칭한다. 인용은 최자영·최혜영 역(Aristoteles et al. 2002)을 사용하였다.

9)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정치제도의 역사를 11개의 시기로 나누고 마지막 열한 번째의 정치 변화, 즉 필레와 페이라이에우스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 자신이 살던 시기까지는 정체의 변화가 없으며, 민의 힘이 꾸준히 불어났다고 말한다(『아테네 정체』, XLI).

했던 것도 사실이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5세기 후반(403-402년) 민주파와 귀족파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민주정이 회복되면서 데모스는 모든 시민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 III. ‘민’ 개념의 이중성의 의미 (1): 민과 귀족의 갈등

‘데모스’의 특성은 민과 계급(계층)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귀족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특히 ‘데모스’의 의미의 이중성(‘전체 시민’/‘다수의 빈자’)은 동일한 대상인 ‘데모스’에 대한 민과 귀족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sup>10)</sup> ‘데모스’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차이는 단순히 단어 사용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현실정치의 갈등을 숨기고 있다. 기존의 귀족엘리트는 일반평민을 정치적 동류(political equals)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평민이 전체 시민에 포함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분쟁이 존재하였다. 민주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개념을 분리하려고 하고, 반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두 개념을 통합하려고 하였다(Ober 2007, 94-5). 따라서 아테네 민주정의 역사는 바로 일반평민을 ‘데모스’에 포함시킬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던 것이다.<sup>11)</sup>

민주파와 과두파의 평등과 불평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도움이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치체제’(politeia)에 관한 책인 『정치학』에서 민주정을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로, 과두정(oligarchia)을 ‘부유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로 정의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폴리스는 직업(농부, 기술공, 상인, 고용 노동자, 군인), 제도(군사, 사법, 입법), 기능(재산에 의한 봉사, 공직에 의한 봉사), 사회경제(가난함, 부유함) 등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치학』, 1290b37-1291b14). 그런데 아

10) 오베르(Ober 1989, 11)는 아테네 정치사회의 맥락 안에서 “엘리트와 다수의 일반 시민 사이의 관계가 오늘날 연구의 중심적인 관심사”이며, “그리스의 민-엘리트 관계에 대한 고대의 최고의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고 말한다.

11) 이점과 관련해서 색슨하우스(Saxonhouse 1996, 33, 36, 118)는 재미있는 주장을 한다. 그녀는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 문제는 의견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평등한가,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평등의 문제는 정체의 종류와 상관없다고 말한다.



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지배자의 수보다 재산의 차이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sup>12)</sup> 통상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과두정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로 이해되나 대체적으로 부자의 숫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지 정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은 우연적이고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시각에 기반 해 있다.<sup>13)</sup>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정과 과두정의 분류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숨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 정의(dikaiosyne)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민주정과 과두정, 민중파와 과두파의 차이를 낳는다고 말한다. 민중파는 귀족이나 평민 모두 자유로운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공직의 배분이나 정치 참여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과두파는 재산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게 태어났으면 공직 배분도 이에 맞추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정치학』, 1280a23-26).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가지에서 평등하다고 모든 것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민중파나 한 가지에서 불평등하다고 다른 모든 것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과두파 모두 온전치 못한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정치학』, 1280a10-11; 1281a9-10).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정한 정의는 국가의 목적인 ‘좋은 삶’(the good life)에 기여한 만큼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가 보기에 두 진영 모두 폴리스의 존재 목적인 ‘좋은 삶’ 또는 ‘고귀한 행동’(noble actions)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학』의 전반적인 기조는 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정의관이 귀족보다 폴리스와 시민의 존재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평등과 불평등에 관한 민과 귀족의 시각 차이에서 민이 요구하는 것은 귀족들과 동등한 권리(equal rights)이고 귀족이 원하는 것은 민보다 더 많은 권리(more rights)다. 민주정의 후기에 민중파가 과격해지고 민

12)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91a38-1291b14)는 “다른 부분들은 한 사람이 동시에 해당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부자이면서 가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고 있다.

13)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다른 곳(1290b7-21)에서는 정치체제의 구분 기준으로서 재산과 수를 결합하기도 한다. 그는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가난과 부라는 판단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구별되지 않는다 [...] 다수자인 가난한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체고, 소수자인 부유한 귀족들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체다”라고 말한다.

이 자주 제국주의와 대외 팽창 정책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더 많은 권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민이 귀족의 성격을 닮아간 결과였다.

한편 아테네 정치의 특성 중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평등이 공존하였다는 사실로부터도 민이 귀족보다 정치의 본질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sup>14)</sup>에도 혈통이나 가문에서 비롯되는 신분의 차이와 경제적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도 정치 엘리트는 일반 평민이 아니라 좋은 가문의 출신이 독점하였다(Ober 1989, 15; Finley 1985). 대표적으로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와 같은 민중파의 지도자들이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따라서 아테네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평등하였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였다. 하지만 민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정치적 평등 이상의 것을 얻어내려는 심각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테네 정치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평등 사이의 긴장 또는 균형관계가 형성된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의 영역과 사회경제적 영역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입장이다. 폰타나(Fontana 1993, 118)는 아렌트(Hannah Arendt)의 이론을 빌려서, 고대정치사상에서 정치는 ‘자유의 영역’(the realm of freedom)이고 가정과 경제는 ‘필요의 영역’(the realm of necessity)이었다고 구분한다. 그리고 그는 정치는 폭력과 강제가 아닌 말과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먹고사는 것이나 폭력에 기초한 원초적인 권력의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이성의 활용 능력에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유추하자면 아테네에서 다른 영역의 불평등은 허용해도 정치적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노력한 것은 정치(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삶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은 역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적 삶(bios politicos)에 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렌트가 경제의 특성으로 지적한 ‘necessity’가 ‘필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함의를 찾아낼 수 있

14) 핀리(1983, 28, 82; 1985, 17)는 아테네의 인구가 적었고(최대 3만5000에서 4만 정도), 좁은 지역에 모여 살았으며, 야외 중심의 생활을 하고, 시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공생활에 노출되었다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아테네 사회가 오늘날의 대학 공동체와 유사한 ‘면대면 사회’(face-to-face society)의 모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베르(Ober 1989, 31-3)는 deme 단위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폴리스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전국 단위의 민회, 재판정, 의회에서 는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다. 즉 다른 영역은 자연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필연의 영역’(the realm of necessity)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정치는 ‘인공적으로 창조된 영역’(artificially created arena)임으로 인간의 개입(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Fontana 1993, 118; Saxonhouse 1996, 32-4). 솔론이 채무에 의한 인신 구속을 금지하고 경제 수준에 따라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그에 맞는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 아테네 민주정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혈통보다는 그나마 재산이 후천적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이었다(『아테네 정체』, VII).

두 번째는 귀족의 부가 폴리스 전체의 이익에 쓰이도록 만든 제도와 이 제도의 바탕이 된 민주적 문화(demotic culture) 때문이다(최자영 2007, 157-8).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테네에서 정치엘리트는 민중파이든 과두파이든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정치적 성공은 민의 지지에 달려 있었다.<sup>15)</sup> 민이 지배하는 민회와 재판정은 폴리스의 정책방향을 승인하고 또 정치인의 정책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아테네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으며, 그 지지여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부자인 정치엘리트는 폴리스에 재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민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민의 정치적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테네인들이 정치적 평등에 만족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적 힘이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다르게 생각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민은 귀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정의와 평등(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민과 귀족의 갈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이 귀족보다, 그리고 민주정이 과두정보다 “정치적 동물”(zoion polition)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폴리스의 존재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polites)을 “변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사람”(『정치학』, 1283b27-1284a3)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한” 시민의 특징을 “재판”과 “공직”에 참여하는 것(『정치학』, 1275a22)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15)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평민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민은 정치에 소극적인 부자(귀족)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의 적대감은 정치영역이 아닌 재산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거리를 둔 귀족들이라 하더라도 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Ober 1989; 1998).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민주정에서 보다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 IV. ‘민’ 개념의 이중성의 의미 (2): 민주주의와 보편성

‘민(데모스)’ 개념에 대한 민과 귀족의 시각 차이, 즉 ‘전체 시민’으로 이해하려는 민과 ‘평민’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키려는 귀족의 노력 사이의 갈등은 한편으로 민이 건설하려는 민주정이 전체를 지향할 뿐 아니라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혈통과 재산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귀족보다는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과 그들이 주도하는 민주정이 평등의 이상과 보편성에 더 부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산계급과 그들이 중심이 된 혼합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에는 “중간” 또는 “중용”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였는데,<sup>16)</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에서도 “중간”(“중용”)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에 속하며, 중용(mesotēs)은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중용을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고(Aristoteles 2006, 66), 『정치학』(1296a7-18)에서는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계급”(hoi mesoi)을 정치체제의 건전성과 안정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국가는 시민들 사이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자유로울 때 가능한데, 이것은 그 구성원들이 이성(logos)에 잘 복종하는 중산계급이 다수일 때 가능하며(『정치학』, 1295b), 또한 중산계급이 많은 곳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학』(1289a26-38)의 정체에 관한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혼합정”을 의미하는 단어와 “정체 일반”을 의미하는 단어가 “politeia”로서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혼합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정체”의 본질

16) 오베르(1989, 4)는 그리스에서 “중간”(middling)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하였던 것은 정치적 위계질서(political hierarchy)가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또한 이로부터 역동적인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였고, 아테네는 역설적으로 그 긴장으로부터 높은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고 본다.

에 가장 부합하는 정체의 종류인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이론에서 중산계급과 혼합정

고대 아테네 사회를 분류할 때 빈자(penetes)와 부자(plousioi)로 나누는 이분법이 보편적이었다.<sup>18)</sup> 그리고 아테네인들도 자신을 둘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세 부류로 나누기도 한다. 『정치학』 IV권(1289b, 1291b)에서 그는 정치체제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모든 국가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집합체를 부자, 빈민, 중산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에 자신들이 중산계급이라는 의식을 가진 계급이 실재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존스(Jones 1986, 8-10, 23-27, 80-93)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최빈층 시민들이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기원전 5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아테네 인구가 약 2만1000명 정도로 급감하였으며, 그 중에서 전쟁세(eisphora)를 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약 6000명 정도의 시민을 중심으로 사회가 안정됨으로써 “4세기 민주주의가 점차 부르주아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한슨(Hanson 1996, 289-312)은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중간계급의 존재가 정치적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아테네 사회를 일반대중과 엘리트로 구분하는 것

17) 박성우(2009, 36)는 정체의 한 종류로서 politeia가 다른 모든 정체의 종류를 총칭하는 단어와 동일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정체가 공공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다수는 더욱 더 각 부류의 장점에 따라 통치의 기능을 다른 계층에 이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균형 잡힌 권력분립이 예상된다. 이런 정체는 다른 정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수의 정체로 부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체를 어느 특정 정체에도 해당되지 않는 총체로서 정체(politeia)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성우는 통상적으로 “혼합정”으로 불리는 politeia를 “다수차선정”(多數次善政)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18)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demos’ 말고도 ‘to plēthos’(군중), ‘hoi polloi’(다수), ‘ho ochlos’(폭도), ‘poneroi’(천민), ‘cheirones’(비천한자들) 등이 사용되었고, ‘부자’(plousioi)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chrestoi’(가치 있는 자들), ‘beltistoi’(최선자들), ‘dynatoi’(힘 있는 자들), ‘gnorimoi’(유명한 자들), ‘gennaioi’(태생이 좋은 자들), ‘kaloi k’agathoi’(아름답고 선한 자들; 신사), ‘eudaimones’(행복한 자들), ‘aristoi’(탁월한 자들) 등이 있었다(Finley 1983, 2; Ober 1989, 11, 13).

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는 약간의 토지를 소유한 농부이자 팔랑크스(Phalanx)에서 중무장 보병으로 활약한 제우기타이(zeugitai) 계층이 대토지 소유자이자 기병으로 활약한 500 메딤노이(pentekosiomedimnoi)/히페이스(hippeis) 계층과 토지가 없는 테테스(thetes) 계층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중간계급(hoi mesoi)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핀리(1983, 10)는 『정치학』에서 중산계급(to meson)은 몇몇 당위적 일반화(a few normative generalizations)를 위해서 등장할 뿐 실제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서 『정치학』(1289b28-32)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족의 집합체를 부자, 빈민층, 중산계급으로 나누고 부자는 중무장보병으로 무장할 능력이 있고 빈민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에, 중산계급에게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들고 있다(Hanson 1996, 10n31). 오베르(1989, 27, 284n57)도 중산계급의 실재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는 고대 아테네의 인구를 정확하게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그리스의 저술가들에게 중산계급에 대한 발전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계급이익과 강한 정치적 목소리를 가진 대규모의 중산계급이 아테네에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

어쨌든 그 실존여부와 상관없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산계급은 이론상으로 유산계급이나 민 사이의 파쟁과 다툼이 일어나 승리한 쪽이 중용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준다(『정치학』, 1296a7-22). 그러나 중산계급은 제3의 세력으로서 빈자와 부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성격이 부자보다는 빈자에 더 가깝고, 귀족이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로부터 아테네가 좀 더 민주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계급에게서 단순히 기계적 중립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이론에서 중산계급, 혼합정, 민주적 요소의 강화는 서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폴리스는 인구가 증가하면 민주적으로 변하는데, 이는 인구의 증가가 곧 중산계급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의 혼합정을 예전에는 민주정이라고 불렀다고 말한다(『정치학』, 1297b12-28). 민이 배제되었던 귀족정이나 왕정의 입장에서 보면 민이 통치에 참여하게 된 정치체제는, 비록 민과 엘리트 귀족이 비슷한 비율로 섞인 혼합정이라 하더라도 정치의 안정이 의심되고, 일종의 불순물이 끼어든 민주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96a36-1296b2)는 동시에 “중산계급은 남지 않고 거의 모두가 빈민이거나 부자”이며, “대부분의 국가에는 대개 중산계급의 수가 적어서, 유산

계급이든 민중이든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중용을 버리고 정체를 자기들 의도에 따라 개편하기에 과두정체 아니면 민주정체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중간형태의 정체는 전혀 세워지지 않았거나, 드물게 소수의 국가에서 세워졌”고, “헬라스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만이 이런 유형의 정체를 수립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정과 과두정에서 정치가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언급하면서(『정치학』, 1310a2-11), “민주정체에서는 민중선동가들(demagogos)이 부자들과 전쟁을 함으로써 나라를 늘 둘로 나누고 있”고, 반대로 과두정체에서는 과두정부 지도자들이 “나는 민중을 증오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롭게 하겠나이다”라고 맹세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계급에 기반한 정체가 좋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역사적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19)</sup> 그는 최선의 정체인 귀족정뿐 아니라 혼합정도 그 존재가 우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정치학』, 1295a25-34).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자신도 실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믿었던 중산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기반한 혼합정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산계급이 귀족이나 부자보다 민과 더 가깝고, 중산계급이 중심이 된 혼합정은 귀족정보다는 민주정에 더 기우는 정체라고 말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폴리스 안정의 열쇠가 민에게 있음을 보여준다.<sup>20)</sup>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의 건전성의 기준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민이 귀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sup>21)</sup> 그는

19) 아리스토텔레스가 “중간계층”에 기반한 혼합정과 “부자들”과 “빈자들”이 섞인 혼합정을 구분하고, 후자를 전자의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였다는 견해도 있다(김경희 2013, 268; Garver 2011, 116).

20) 이병택(2011, 23)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산계층과 혼합정을 “공동성”(the common)을 구현하는 “정치적 범주”로 제시하였다고 해석한다.

21) 한편 민(demos)과 민주정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부정적이다. 고대 아테네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의 주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플라톤은 정치(통치)는 무엇보다 지식(episteme; phronesis)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이 통치하는 민주정은 제대로 된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Held 1996, 29), 지식을 소유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통치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왕과 달리 “법은 최선의 것과 가장 올바른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코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Platon 2000, 185-6). 그렇지만 이상 정치를 주로 논하는 『국가』(Politeia)에 서와는 달리 좀 더 현실적인 정치를 다루고 있는 『정치학』과 『법률』에서는 민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Held 1996, 32). 따라서 정치의 현실적 적용성 측면에서는 민과 민주정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산술적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정의 지지자들과 재산에 따른 비례적 평등을 주장하는 과두정의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 해결 방법을 논하면서, “약자”가 “강자”보다 평등과 정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말한다(『정치학』, 1318b1-5). 또한 귀족정과 혼합정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과두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정체를 “귀족정”이라 부르고, “대중”(“민주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정체는 “혼합정체”라고 부르는데, “대중”은 쉽게 만족하지만 부자들은 교만해지기 쉽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혼합정이 귀족정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정치학』, 1307a12-20). 그리고 『정치학』 IV권 12장(1297a6-13)에서는 “귀족정체”의 잘못이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줄 뿐만 아니라 민중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혼합정뿐 아니라 중산계급이 공직에 더 많이 참여하는 민주정도 과두정보다 더 안정되고 오래 존속하는 것이다(『정치학』, 1296a13-17).

## 2. 정치와 보편성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최선의 정체인 혼합정은 민주정에 가깝고 민주정이 과두정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만 극단적인 민주화 경향은 문제시 한다. 최선의 민주정을 논하는 『정치학』 VI권 4장에서 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인해 법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 중에서 농민으로 구성된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가가 없어서 민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필품이 모자라 항상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공직자들을 선출하고 퇴임 시 감사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정치학』, 1318b6-27).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의 적당한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정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91b30-1292a31, 1295b13-28)는 또한 극단적인 민주정에서 참주정과 친화성을 발견 한다. 그는 진정한 국가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람들(political equals)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세력을 통치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체 중에서 가장 나쁜 참주정과 비슷해지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의미의 정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의 전반부의 주제인 ‘민’ 개념의 이중성으로 되돌아가면, ‘민’이 “평민(빈자)”에 머물지 않고 “전체 시민”에 포함되는 것, 즉 보편성의 획득



은 그들의 오랜 열망이었다. 민의 수가 적고 조직도 열세였던 옛날 정체(patrios politeia)는 당연히 과두정이나 왕정뿐이었고, 민은 위로부터의 압제를 감내해야만 하였다(『정치학』, 1297b12-28). 그런데 민이 다수가 되고 폴리스를 장악하게 되자, 즉 민이 “전체”가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였다. 그들은 마치 폴리스 안에 자신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특성상 “폭군”과 다름없었던 것이다(『정치학』, 1292a7-31).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정체와 나쁜 정체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공동의 이익” 추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체와 정부(politeuma)는 사실상 같은 뜻이다. 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인데, 최고 권력기구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에 의해 대표된다.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다. 그러나 한 사람, 소수자 또는 다수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정치학』, 1279a25-3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권력자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정체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세력이든지 극단화, 파당화 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 전체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의 본성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중용’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22)</sup>

극단적 민주정의 “폭군적” 성격은 법(nomoi)과 민의 결의(psêphisma)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치학』 IV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종류를 다섯 가지<sup>23)</sup>로 분류하면서 보편적인 법이 지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민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다섯 번째의 경우

22) 아테네의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민권의 보편적인 적용을 위해서 투쟁해 온 민도 결국에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성향을 보였던 것이다.

23) 민주정체의 첫 번째 유형은 민중이 다수지만 빈민이나 부자 어느 쪽도 독점하지 않도록 법에 의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정체이고, 두 번째는 공직을 배분할 때 낮은 재산등급을 요구해서 필요한 재산을 획득한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체이며, 세 번째는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양친 모두가 시민인 경우)은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하는 경우, 네 번째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법이 아닌 민중의 결의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경우다(『정치학』, 1291b30-1292a7).

는 사실상 정체(politeia)라고 불리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않는 곳에는 정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보편적인 것에 대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공직자들은 개별적인 경우들을 조정하면 된다. 그러한 경우는 정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정체가 정체 가운데 하나라면, 모든 것이 민중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체가 아님이 명백하다. 민중의 결의에는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정치학』, 1292a31-39).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법(nomoi)은 오늘날의 의미와 많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법은,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법률이 아니라 폴리스 전체의 삶을 규정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국가의 관습과 전통을 말한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법이 “정의”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Kitto 2008, 145). 그리고 고대 아테네의 민회(ekklesia)에서 이뤄지는 민의 결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의회에서 결정되는 법(legislation)을 의미하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의 결의가 법을 압도하는 현상은 정체의 기준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의 결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을 선동하여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그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인 민중선동가(demagogos)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81a39-1281b15)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민의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열등하지만 많은 수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모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찾는다. 그런데 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와 특성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민중선동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의 의견으로 쏠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폭군’의 변덕스러움과 닮은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의 결의와 법을 대조시키는 것은 민주정, 더 나아가서 정체의 특성이 법이 지배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은 보편성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4)</sup>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93b31-1294a25)는 민주정, 과두정, 귀족정 등 주요 정

24) “법”(nomos)과 “민의 결의”(psêphisma)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박성우(2009, 27)는 5세기에 법 개념에 민회의 결의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둘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병택(2011, 21-2)은 민회의 결정을 참주의 “명령”(epitigmata)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통상적인 해석을 따르고 있다.

체들의 “정체”로서의 특징은 각각 자유민 신분, 재산, 탁월함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민주정의 특성인 자유민 신분은 과두정의 특성인 재산보다 보편적인 기준이다. 자유민 신분은 귀족에게도 적용되지만 과두정의 기준인 재산은 빈민에게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주정의 원리가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나가서 정체나 폴리스의 기준에 더 부합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민의 권력 독점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권의 확대, 즉 보편성의 획득이었다. 아테네에서 민은 “전체 시민”의 의미로서 “데모스”로 불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을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처하기도 하였지만, 귀족은 “데모스”로 불리지 않았고 또 “데모스”라는 호칭을 평민들에게 한정시키려고 하였다. 민(demos)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은 민이 귀족보다 보편성(공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산계급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민주주의’(demokratia)에서 ‘민’의 어원인 ‘demos’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를, 그 단어가 고대 아테네에서 ‘전체 시민’과 ‘평민’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민’ 개념의 이러한 특성은 ‘데모스’뿐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민’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의 ‘populus’,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popolo’, 그리고 오늘날 민을 대표하는 영어 단어인 ‘people’ 등은 예외 없이 ‘전체 시민’과 그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민’ 또는 ‘빈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과 관련된 개념들의 이러한 중의성(重意性)은 무엇보다도 민이 공동체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전체를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근대 초기에 세력을 형성해가던 부르주아가 만민평등사상을 주장하였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민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편타당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귀족이나 상류계층은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민보다 확장성이 약하다. 혈통·재산 등에서 열등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던 민이 오랜 투쟁을 통해 추구하였던 것은 자신들도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부분”으로서의 “평민”이라기보다는 “전

체”로서 “모든 시민”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계급을 민과 귀족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있지만 그 둘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제3의 세력이라기보다는 민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혼합정도 민주정의 특성과 과두정의 특성이 단순하게 혼합된 것이 아니라 민주정과 더 큰 유사성이 있는 정체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에서 최선의 정체를 중산계급이 중심이 된 혼합정에서 찾고, 또 민주정과 중산계급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은 민의 권력 독점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권의 확대, 즉 보편성의 획득에 있으며, 결국 폴리스의 발전과 안정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정은 무엇보다 시민 모두 자유(eleutheria)롭고 평등(isonomia)하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모두가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민주정의 매력이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따를 때, 폴리스와 정치의 본질에 어떤 정체보다도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의 존재 목적인 보편성(공공성)과 선(agathon)의 실현을 귀족보다는 민에게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계급과 혼합정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민주정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이 추구하던 원래의 이상인 보편타당성과 개방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민과 민주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정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 즉 누가 시민에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안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다른 정체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강하고 개방적이다. 민의 권력이 강해지고 기득권화 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하기도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은 보편성과 평등에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적어도 헌법이나 이념상으로는 특정 세력이나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종·혈통·재산 등의 기준에 따른 차별이 있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재확정일 2013년 5월 31일

## 참고문헌

- 김경희. 2006.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 아테네민주정의 전 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5-25.
- \_\_\_\_\_. 2013. “갈등해결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갈등.” 『한국정치 연구』 22집 1호, 259-281.
- 박성우. 2009. “윤리와 정치의 통합으로서의 법의 지배: <니코마코스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의 지배.” 『21세기 정치학회보』 19집 3호, 23-49.
- 이병택. 2011.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선의 변천: 『아테네 헌정』을 중심으로.” 『오토피아(Oughtopia)』 26권 1호, 5-28.
- 최자영. 2005. 『정치의 원형을 찾아서』. 파주: 살림.
- \_\_\_\_\_. 2007. 『고대 그리스 법제사』. 서울: 아카넷.
- Aristoteles.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역. 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 \_\_\_\_\_. 천병희 역. 2009. 『정치학』. 서울: 숲.
- Aristoteles et al. 최자영 . 최혜영 역. 2002.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 서울: 신서원.
- Canovan, Margaret. 2005. *The People*. Cambridge: Polity.
- Crick, Bernard. 2002. *Democrac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hl, Robert.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unn, John, ed. 1992. *Democracy: The Unfinished Journey 508 BC to AD 199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rrar, Cynthia. 1992. “Ancient Greek Political Theory as a Response to Democracy.” In John Dunn, ed. *Democracy: The Unfinished Journey 508 BC to AD 199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nley, M. I. 1983. *Politics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Democracy Ancient and Modern* (2nd ed.).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Fontana, Benedetto. 1993. *Hegemony & Power: On the Relation between Gramsci and Machiavell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arver, Eugene. 2011. *Aristotle's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lowacki, Kevin. 2003. "A Personification of Demos on a New Attic Document Relief." *Hesperia* 72. No.4, 447-466.
- Hansen, Mogens Herman. J. A. Crooks, tr. 1999. *The Athenian Democracy in the Age of Demosthenes: Structure, Principles, and Ideology*. Norman,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eld, David. 1996.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 Honson, Victor. 1996. "Hoplite into Democrats: The Changing Ideology of Athenian Infantry." In Josiah Ober and Charles Hedrick, eds. *Demokrat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A. H. 1986. *Athenian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itto, H. D. F. 박재욱 역. 2008. 『고대 그리스, 그리스인들』. 서울: 갈라파고스.
- Najemy, John. 2008. *A History of Florence 1200-1575*. Chichester, UK: Blackwell Publishing.
- Ober, Josiah. 1989.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The Athenian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I Besieged That Man': Democracy's Revolutionary Start." In Kurt Raaflaub, Josiah Ober, and Robert Wallace, eds. *Origins of Democracy in Ancient Greece*, 83-10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sborne, Robin. 1985. *Demos: The Discovery of Classical Att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The History Written on the Classical Greek Bo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ton. 김태경 역. 2000. 『정치가』. 파주: 한길사.
- Saxonhouse, Arlene. 1996. *Athenian Democracy*. Notre 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Shapiro, Ian. 1996. *Democracy's Pla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Amy. 2003. "Athenian Political Art from the Fifth and Fourth Centuries BCE: Images of Political Personifications." [http://www.stoa.org/projects/demos/article\\_personifications?page=8&greekEncoding=](http://www.stoa.org/projects/demos/article_personifications?page=8&greekEncoding=) (검색일: 2013. 03. 20).
- Weber, Max.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trs. and eds. 1978.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hitehead, David. 1986. *The Demes of Attica: 508/7-CA. 250 B.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

## The Double Senses of ‘Demos’ and the Origins of Demokratia

Chul-Hee Shi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origins and nature of demokratia (democracy), focusing on the double meanings of ‘demos’: ‘the whole citizens’ and ‘common people’. Until now, the studies on democracy have stressed rule (kratos) or institutions (politeia) and neglected ‘demos’, the subject of democracy. The investigations of demos, however,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democracy and reforming our reality in that it is human beings who run all the institutions.

At first, ‘demos’ in Ancient Greece meant ‘deme’, the administrative district, but afterwards it implied ‘the commoners’ and ‘the citizen body’. The doubleness of the concept ‘demos’ reflects the discrepancies of perspectives on justice between the nobility and the commoners. ‘The whole citizenry’ shows the passion of the common people who think they represent Athens, while ‘common people’ projects the will of the nobility who dislike acknowledging the supremacy of the commoners. Therefore, the doubleness of sense of ‘demos’ shows not only the conflicts between the nobles and common people but also the latter is more fit to the nature of citizen and the telos of polis than the former is.

Moreover, I will say that Aristotle’s treatment of middle class and mixed regime in his *Politics* and *the Athenian Constitution*, which are the most minute texts for the Ancient Athenian history, is important in that it symbolizes universality, the ideal of democracy.

**Keywords:** democracy, people, demos, Aristotle, middle class, mixed regime

